



우상혁이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서 2m33을 넘어 우승했다.

韓 첫 다이아몬드리그 우승

男 높이뛰기 결선 2m33 넘어 1위
우상혁 “노력하며 즐기겠다”
바심 누르고 개막전 챔피언 등극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우승했다. 우상혁은 지난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치러진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3을 넘어 1위를 차지했다.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역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2m30)을 제쳤다. 이날 우상혁이 넘은 2m33은 자신이 보유한 실외 한국기록(2m35)과 실내 한국기록(2m36)보다는 낮았지만, 2022년 세계 실외 최고 기록이다. 앞서 2022년 실내 대회에서 2m36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웠던 우상혁은 실외 대회에서도 최고 기록을 작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후 우상혁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처음 출전한 다이아몬드리그 대회에서 올 시즌 세계랭킹 1위(World Lead, 실외) 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해서 행복하다”며 “다음 주 영국 버밍햄 다이아몬드리그 대회에서도 매 경기마다 집중하여 기록을 경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즐기겠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우상혁은 이날 2m16을 패스하고, 1차 시기에 2m20을 넘었다. 2m24에선 1, 2차 시기를 모두 실패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3차 시기에 성공했다. 이어 우상혁은 2m27과 2m30을 모두 성공했다. 2m30을 넘은 건 우상혁과 바심, 단 두 명이 있다. 승부는 2m33에서 갈렸다. 우상혁이 1차 시기에 2m33을 넘었다. 그러나 바심은 2m33 1차 시기를 실패한 뒤 2m35로 역전을 노렸으나, 이마저도 넘지 못했다. 우승을 확정지은 우상혁은 2m35 1, 2차 시기에 실패하고 2m37에 도전했으나 바심 건드렸다. 우상혁은 우승 상금 1만 달러(약 1280만원)와 다이아몬드리그 포인트 8점을 획득했다. 한국에선 2014년 도하 대회에 남자 100m 여호수아, 400m 임찬호가 다이아몬드리그에 참가한 적은 있으나 우승은 우상혁이 처음이다. 2020 도쿄올림픽서 한국 기록인 2m35를 넘어 4위에 올랐던 우상혁은 지난 3월 2022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선수권에서 2m34를 뛰어 한국 선수로는 처음 우승했다. 그리고 초청 선수로 다이아몬드리그에 나선 우상혁은 현역 최강자로 불리는 바심을 누르며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다이아몬드리그는 1년에 총 14개 대회가 열리는데, 13개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정한 뒤 마지막 14번째 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올해는 7월에 예정됐던 상하이 대회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돼 13개 대회만 열린다. 각 대회 우승자는 승점 8점을 획득하며, 상위 6명이 다이아몬드 마지막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 챔피언에 오른 우상혁은 오는 21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나서 2연속 우승을 노린다. /뉴시스

내달 12일 군산 새만금 인라인마라톤

새만금 방조제 바닷길을 가르며 달리는 '제6회 군산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가 6월 12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인라인 마라톤이 개최되며,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선수 및 동호인 최대 규모의 대회다. 군산 비응정을 출발해 바람산터를 지나 아미도 전 수변도로 끝지점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42km 경쟁, 21km청년부, 장년부와 더불어 11km경쟁, 비경쟁 종목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joinline.com)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아·태 마스터스 통화연결음 공개

1000명 선착순 홈페이지 신청 사용
‘대회 홍보대사’ 가수 진성이 녹음

내년 5월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앞두고 통화연결음을 대회 홍보 멘트로 무료 사용하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화연결음은 대회 홍보대사인 진성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 제작해 대회 주제 가인 'The Way'가 배경음악으로 삽입됐다. 대회 홈페이지(aptm2023.kr-참가등록) 통화연결음 신청)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 제공된다.

또한 해당 통화연결음은 조직위 및 전북도청 행정전화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며, 연결음 사용을 원하는 공공기관, 단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무료로 제공한다. 조직위원회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전북브랜드 가치 상승·도민 자존의식 고양 등을 기대하고 있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태권도, 배드민턴, 육상 등 2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며,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이라면 국가, 성별, 스포츠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100년 명품 '대관령숲길 걷기 원정대' 참가자 모집

선착순 100명 내달 18일 체험 진행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건강회복과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 확산을 위해 '대관령숲길 걷기 원정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오는 6월 1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관령숲길 걷기 원정대'는 지난해 5월 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 12개 숲길 중 하나인 대관령 소나무숲길(6.3km) 구간을 숲길등산지도사들과 함께 걸으며, 대관령숲길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해 명소들을 만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6월 18일에 숲길 안내센터를 출발해, 삼포암

과 노루목이, 풍육대, 금강송정을 거쳐 안내센터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숲길 걸기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15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방법은 구글폼(<https://forms.gle/fTCgGVEDdyD6JULYU7>)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흘리 숲밥을 도시락으로 제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kmount.or.kr>) 및 대관령숲길안내센터(033-336-4037)로 문의할 수 있다. 전범권 이사장은 "100년 명품 대관령소나무숲길을 걸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 받고 다시금 활기찬 삶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EPL 올해의 선수 후보 선정

손흥민, 살라·더브라위너 등과 경쟁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오르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케빈 더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이하 맨시티)와 경쟁을 벌인다. EPL 사무국은 지난 1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과 살라, 더브라위너를 비롯해 주앙 칸셀로(맨시티), 부카요 사카(아스널), 제임스 워드(프라이스(사우샘프턴), 제러드 보웬(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등 7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현재 기록이나 팀 성적으로만 본다면 살라와 더브라위너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손흥민도 만만찮은 후보다. 특히 최근 영국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손흥민을 은근히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 수상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일단 개인 성적만 놓고 봐도 손흥민이 크게 뒤질 것은 없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에서 33경기에 나서 21골과 7어시스트를 기록, 2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살라만이 34경기에서 22골과 13어시스트로 35개의 공격 포인트로 손흥민보다 많은 뿐 더브라위너는 28경기에서 15골 7어시스트로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7명의 후보 가운데 손흥민이 두 번째로 많은 득점과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다만 팀 성적은 더브라위너와 살라가 앞선다. 더브라위너는 자신이 출전한 28경기에서 20승 5무 3패를 이뤘었다. 살라 역시 출전한 34경기에서 24승 8무 2패를 견인했다. 반면 손흥민은 출전한 33경기에서 19승 5무 9패로 더브라위너, 살라에 크게 뒤진다.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팀 성적만 놓고 보면 살라가 앞서지만 더브라위너는 맨시티의 EPL 우승 경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올해의 감독상 후보로는 펠 파르티올라 맨시티 감독과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을 비롯해, 토마스 프랭크 브렌트포드 감독, 에디 하우 뉴캐슬 유나이티드 감독, 파드리크 비에이라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 등 5명이 선정됐다. /뉴시스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